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종사자와 이용자간 인식

김남숙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Difference between Employees and Users of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Nam-Sook Kim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가 갖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에 목적을 둔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기관 8개소 장애인 이용 당사자 178명과 종사자 173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예측 등 관련된 자체 제작 설문지를 통해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으나 장애인복지기관의 준비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간 인식하는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은 낮다고 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변화 예측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가 더 긍정적 변화를 예측했고 종사자가 이용자 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대응전략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여 향후 한국장애인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여긴다.

주제어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이용자, 종사자, 4차 산업혁명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disabled who use the IL center or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and its workers. It surveyed 178 disabled users and 173 workers at eight centers of the handicapped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do and conducted an analysis on their interests in the fourth industry, awareness of the latest technology, and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disabled welfare center. Although worker's interest in the fourth industry was higher than their users, their perception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by the disabled welfare centers indicated that the worker's level of future institutional readiness was lower than that of the users. The results will be used to help set directions for future guidelines and plans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Key Words** :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IL center, the disabled who use the IL center or the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its work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기존 농업 위주 경제체제에서 기계를 이용한 제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Tongmyong University(2017A041).

\*Corresponding Author : Nam-Sook Kim(welpia0420@tu.ac.kr)

Received October 23,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18,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전기에너지 기반의 생산환경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혁신을 낳은 3차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네 번째 산업혁명, 즉 제4차 산업혁명기에 도래하였다. WEF(2016)[1]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digital), 물리적(physical), 생물학적(biological)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 혁명”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인류에게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포스트휴먼시대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지난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통한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들을 이용한 공연과 시연들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한층 가까워진 시대적 변화를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양한 학문별 연구들로 진행되고 있다. 포스터휴먼시대의 새로운 인간존재의 고민에 대한 수용여부로서 형태의 인간상에 대한 연구[2],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 도서관 미래상에 대한 연구[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영어교사의 미래준비도[4], 보건의료산업분야 종사자를 위한 융합교육[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6], 특수교사의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인식[7] 그리고 보조공학사들의 미래 인식[8]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막연했던 미래에 대해 학문별, 전문가별 가지적인 대응 전략을 살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만인의 삶에 폭넓은 변화를 예측하지만 장애인의 삶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 진척은 “삶의 혁신 그 이상”일 것이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발전을 통해 재활, 특수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장애라는 핸디캡을 보완하여 일상생활을 보상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이 네 번째 인류가 맞게 되는 기술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들과는 현저하게 차원이 다른 기술들로(AI, 3D프린트기술, 무인자동차 등)전통적인 “장애”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제4차산업혁명! 장애인복지의 대혁명’을 말하다’라는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향후 장애인 일자리, 의료, 인권 등과 같은 폭넓은 주제의 토론이 시도되었고 동년 제46회 RI Korea재활대회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의료, 불평등, 고

용, 교육, 건강 등 장애인의 삶과 연관되는 주제들을 쟁점화하여 화두로 끌어내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상상과 그 기대 이상으로 메가톤급 변화를 장애계에 안겨 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기대는 동시에 암울한 불안과 거품일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빈부의 격차,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되고 로봠키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수치심은 덜어질 수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소외와 고립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9].

한편, 지역사회내 장애인들의 재활과 여가, 상담 등의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시설로 정의된다[10]. 장애인들의 지역사회내 재활을 위해 가장 접근성 높게 이용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 이후 37년 동안 전국에 240여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었다. 2000년 이후로 장애인복지계에 있어 또 하나의 복지주체이며 지역사회내 이용기관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철저하게 변화된 장애인자립패러다임과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탄생된 조직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과는 태생적 상이성이 존재하나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큰 공동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주목하였다. Nisek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형평성(equ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비유지불의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소비자 주도성(consumer control)의 원리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특징짓고 있다[1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를 둔 기본방향은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을 통한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개별 장애인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 달성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 장애-비장애 소통의 활성화이다[12].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3년 1개소에 지나지 않았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9년 현재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15개소와 미지원 4개소가 운영되고[13]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급증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성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종사자의 직무만족[14], 동료상담 관련 연구[15] 등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채롭다. 크게 기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16-19], 종사자들의 역량, 교육, 수퍼비전, 지지[20-23],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24]에 관한 연구 등이나 급변하는 시대적 물결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관의 논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남희은[25] 등은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관련 논의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논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내용은 부재한 상황으로 종사자들의 눈에 비친 간접적인 장애인들의 삶 예측이라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인복지기관은 단순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넘어 정보교류, 사회적 고립방지, 활동적인 생활유지, 지지체계형성이라는 긍정적 기능의 존재임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마주하게 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관의 대응 관련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정진모[26]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정체성(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장애인복지관들이 개관 10년, 20년 기념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복지재단에서 연구물들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 정립 등을 위해 고려되는 사항으로써 정치사회적 환경요인, 외적 환경요인(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등), 내적 환경요인(운영범인이념, 경영자철학, 종사자상황)이 있으나 주로 정치사회적 환경요인과 내적 환경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급변 4차 산업혁명이란 사회적 변화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정체성에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더욱 강한 충격을 가할 것이며 향후 장애인복지기관의 적절한 대응과 기능 및 역할 정립을 위해서 외적 환경요인인 장애인들과 내적 환경요인으로 꼽히는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적 실천주체인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복지관과 II센터)의 이용 장애인과 그 종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기관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 분석을 통해 장애인

복지기관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외적 환경요인 및 내적 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양자가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애인복지기관의 준비수준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예측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환경요인 및 내외적 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함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변화 대응 전략을 축진하고 적절한 기관들의 정체성, 즉 시대변화에 맞는 기능과 역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연구목적과 의의를 둔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남의 장애인복지관과 II센터 8개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190인, 종사자 180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무응답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별된 장애인 12부, 종사자 7부를 제외하여 장애인 178부, 종사자 173부, 총 35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의 가시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 예측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발달장애 및 내부장애는 급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2.2 조사도구

기존의 선행연구[3-8]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미래변화예측, 대비, 인식 등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은 1차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련 전공 교수 4인이 연구의 목적과 문항의 내용타당성[24] 여부를 검토 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sup>1)</sup>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 4인과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표현 및 구성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후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내용타당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관심도와 장애인복지기관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항,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최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무인화로봇에 대한 관심도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를 예측하는 9문항으로 장애인복지기관의 인력 및 업무환경 변화, 사회적 필요성의 증대, 장애인복지기관의 최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삶 향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기술 관심 척도에 있어 Cronbach 알파값은 .911이며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 예측 척도는 Cronbach 알파값 .871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와 종사자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기관의 준비도, 기관변화에 대한 변화예측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빈도분석, t-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category	user		worker		total		
	N	%	N	%	N	%	
total	178	100.0	173	100.0	351	100.0	
sex	male	112	62.9	66	34.0	157	44.7
	female	66	37.1	128	66.0	194	55.3
age	20s	21	13.5	42	24.3	66	18.8
	30s	31	17.4	71	41.0	102	29.1
	40s	31	17.4	41	23.7	72	20.5
	50s	31	17.4	19	11.0	50	14.2
	60s	61	34.3	0	0	61	17.4

성별에 있어 남성 157명(44.7%), 여성 194명(55.3%) 이중 이용자는 남성 112명(62.9%), 여성 66명(37.1%)이고 종사자는 남성 66명(34.0%), 여성 128명(66.0%)로 종

사자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이용자 여성 응답자 보다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계의 종사자들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균연령을 환산하면 이용자의 경우 44세, 종사자의 경우 32세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인 27명(15.2%), 1-3년 미만 29명(16.3%), 3-5년 미만 43명(24.2%), 5-10년 미만 48명(27.0%), 10-15년 미만 23명(12.9%), 15년 이상이 8명(4.5%)이었으며 종사자들의 장애인복지관 근무기간은 1년 미만 31명(17.9%), 1-3년 미만 31명(17.9%), 3-5년 미만 35명(20.2%), 5-10년 미만 38명(22.2%), 10-15년 미만 32명(18.5%), 15년 이상 6명(3.5%)이었다.

3.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먼저 두 집단의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전혀 관심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이다.

이에 Table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2. Interest i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category	M±SD	t	p
total	2.68±1.08		
user	2.51±1.25	-3.098	.002**
worker	2.86±.83		

\*p<.05, \*\*p<.01, \*\*\*p<.001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 보다 종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98, p=0.02).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보다 종사자에게 미치는 속도가 더 빠름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Table 3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최신기술의 세부항목별 관심도이다. 최신기술들의 세부항목으로는 5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추출하였는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er),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3D프린터(3D printer), 로봇(Robot)으로 선정하였다.

Table 3에서처럼, 5가지 최신기술들에 대한 관심도에 서 대체로 종사자들이 이용자들 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경우 이용자가 2.89, 종사자 3.05로 종사자가 더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t=-2.966(p=0.03)$ 로 나타나 이용자와 종사자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신 기술 중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3.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y

category		M±SD	t	p
AI	total	2.89±1.05	-2.966	.003**
	user	2.72±1.18		
	worker	3.05±.864		
Big Dater	total	2.71±1.13	-5.273	.000***
	user	2.40±1.19		
	worker	3.02±.99		
ICT	total	2.56±1.11	-5.343	.000***
	user	2.46±1.19		
	worker	2.66±1.00		
3D printer	total	2.80±1.15	-5.533	.000***
	user	2.48±1.25		
	worker	3.13±.93		
Robot	total	2.99±1.08	-.396	.692
	user	2.97±1.21		
	worker	3.02±.92		

\* $p<.05$ , \*\* $p<.01$ , \*\*\* $p<.001$

빅데이터에서 이용자 2.40, 종사자 3.02로 종사자가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t=-5.273(p=.000)$ 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물인터넷에서도 이용자 2.46, 종사자 2.66  $t=-5.343(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D프린터의 경우 이용자 2.48, 종사자 3.13로 역시 종사자가 더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 역시  $t=-5.533(p=.000)$ 로 나타났다. 한편 로봇에 대한 두 집단 간 관심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96$ ,  $p=.693$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역시 종사자가 이용자 보다 높았으며 5가지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3D프린터에 대한 두 집단 관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중 3D프린터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의 관심도 차이가 가장 많았고 빅데이터와 더불어 3D프린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는 타 기술들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 3.3 장애인복지기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물결에 대해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준비수준과 기관의 변화 예측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먼저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장애인복지기관이 어떻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설문 문항은 현재 기관의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해 준비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하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선도적 위치에 있다'로 5점 척도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reparation level

category	M±SD	t	p
total	2.41±.88	4.809	.000***
user	2.62±.92		
worker	2.18±.79		

\* $p<.05$ , \*\* $p<.01$ , \*\*\* $p<.001$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에 대해 이용자 2.62, 종사자 2.18로 이용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준비수준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4.809(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들은 종사들에 비해 기관의 준비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 변화를 예측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문항은 모두 9개로 이루어졌으며 최신기술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인력 및 업무환경 변화, 사회적 필요성의 증대, 장애인복지기관의 최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삶 향상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4차 산업으로 인한 장애인 삶의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본 연구의 핵심인 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변화 기대를 살펴본 후 그 정보를 통해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Table 5. Changes of Institutions o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category	M±SD	t	p
total	3.16±.69		
user	3.11±.85	-1.299	.195
worker	3.21±.47		

\*p&lt;.05, \*\*p&lt;.01, \*\*\*p&lt;.001

Table 5에서처럼, 이용자 3.11, 종사자 3.21로 종사자가 이용자 보다는 더 높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t=-.1299(p=.195)$ 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 4. 논의 및 제언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예측 불가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변화에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 당사자와 종사자가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변화하는 미래의 장애인복지기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를 책임지는 장애인복지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준비수준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예측 등에 대한 종사자와 이용자간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와 종사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에서 종사자가 이용자보다는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종사자는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통해(종사자보수 교육, 워크샵) 이용자 보다 더 빈번히, 그리고 깊게 사회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기관들의 설립목적이 장애인들의 치료, 재활, 상담, 장애운동 지지 등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춰 각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향후 장애인복지발전의 기대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결과이다. 즉,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원조를 하게 되는 종사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들의 능동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최신기술에 대해서도 종사자의 관심도는

장애인 이용자보다 높았는데 5가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모든 항목에서 종사자의 관심도는 이용자보다 모두 높았다. 이런 종사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는 의미는 향후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향상과 장애인 원조를 통해 장애인복지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갖게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기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수준에 관련 인식에서도 두 집단의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와 그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장애인 이용자 보다 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복지기관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변화에 대한 준비수준에 있어서는 종사자가 이용자에 비해 준비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종사자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해 현재 장애인복지기관과 자신의 업무 및 조직운영 등에 있어 느끼는 불확실성과 변화속도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들은 보다 막연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남희은[22]연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을 대체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휴먼서비스의 설자리가 없어 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현재 기관들의 적절한 준비가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 즉 장애인복지기관이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인력 및 업무환경 변화, 사회적 필요성의 증대, 장애인복지기관의 최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삶 향상이 될 것인지 대한 인식에서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높은 긍정적 기대를 보였다. 두 집단 중 종사자들이 더 높은 긍정적 기대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 역시 현장에서 업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보다는 종사자가 더 용이하게 접하기 때문에 기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의 4차 산업혁명과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변화 준비수준에서 두 집단이 갖게 되는 인식 차이에 대해 두 가지 제언을 밝힌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최신기술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 보다 관심이 높은 종사자들의 의욕을 충족해 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교육, 그와 관련된 최신기술 교육,

업무관련 응용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연수 등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학계에서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융복합 연구들의 실천적 적용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장애인복지와 융복합 영역의 접목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기관과 학계의 공동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수준이 이용자에 비해 낮다고 밝힌 부분을 위해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다채로운 교육의 장 제공은 적절한 해결책으로 제시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장애인의 최신기술사용으로 인한 휴먼서비스의 의존도 감소에 대비할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생각보다 빨리 닥칠 가까운 내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역으로 기계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고립, 외로움으로 인간적인 대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수 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애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장애”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변화의 도전들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욕구는 다변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기관과 종사자들의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최신기술에 있어 종사자보다 관심도는 낮고 기관의 준비수준은 높다고 밝힌 이용자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최신기술들이 미래의 장애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며 어디까지 실용화 되고 있는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기관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을 종사자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있어 장애인복지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향후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기관의 정체성정립에 있어 기관 이용자인 장애인에 대한 요인은 외적 환경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융복합된 최신기술과 앞선 정보가 장애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하더라도 여전히 장애인복지기관은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의 삶을 원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종사자와 장애인복지전문가 그리고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은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미래에 대응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새시대의 변화에 대한 개별 장애인

복지기관의 대응과 도약은 궁극에는 한국장애인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애인복지기관 관련 인식 차이만을 연구하였으나 추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식차이를 갖게 된 요인 분석 파악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 REFERENCES

- [1] World Economic Forum(WEF). (2016).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 WEF.
- [2] H. K. Kim. (2018). Post Human and the Imago Hominis of Criminal Law. *Anam Law Review*, 55, 135-160.
- [3] T. Y. Park, J. Y. Gang, Y. Kim, T. K. Kim & H. J. Oh. (2018).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Future of Libraries in the era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203-229.
- [4] H. S. Kim. (2017). *A Study on the prepara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teache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ctor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Seoul.
- [5] S. J. Kim, Y. S. Kim, J. H. Kim, J. H. Lee & K. E. Cha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workers in Health and Medical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43-52.
- [6] J. W. Lee & Y. S. Kim. (2018). Awareness on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of dental hygienists for future medical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131-139.
- [7] H. M. Jang. (2017).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o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Future Social Awareness, Curriculum for the Hearing-Impaired Student, Methodology of Language Education, and Direc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8] K. H. Jung & B. S. Song. (2018).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 about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1), 373-393.
- [9] W. Y. Kim. (2017).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he

- issues surround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http:// www.freeget.net](http://www.freeget.net)
- [10] W. Y. Choi & K. J. Lee. (2014).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Pajoo: Hakjisa.
- [11] M. A. Nosek. (1988).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In E. Robin & N. M. Robin(Eds.),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fession. Abingdon-on-Thames :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12] Korea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y. <http://www.law.go.kr>
- [13] <http://www.busan.go.kr>
- [14] K. A. Jung. (2018).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 Employees at the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5] C. H. Ryu. (2018). *A Study on the Components and Interactions of Peer Counseling i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tegrated Approach with Concept Mapping and Interactive Qualitative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16] Y. D. Kim. (2017). Service innovation of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ople - Resisting to Institution within the Institu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7, 33-56.
- [17] S. H. Lee & Y. Y. Choi. (2018). A Study on Practical Recognition about Rights Advocacy of Social Workers in Disabled Welfare Cent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65-271.
- [18] C. B. Cho, D. Y. Kim & S. J. Lee. (2018). Analysis of the Situ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dult in the Lifelong Education and Demand of it : Focusing on the Users of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1), 195-217.
- [19] J. A. Yeom & Y. S. Kim.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taffs and Users toward the Services of Welfare Centers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4(1), 87-108.
- [20] J. Kim & S. M. Han.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Violence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Workers a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5, 5-26.
- [21] S. K. Kwon & Y. J. Jung. (2017). Exploring the competency of social Worker i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7(10), 513-520.
- [22] H. W. Sin. (2017). A Study on Status and Needs of In-Service Educa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Disability & Employment*, 27(2), 5-27.
- [23] E. J. Jung & S. H. Kim. (2017). Research of staff supervision structures and processes in social welfare agencies - Focusing on the welfare agencies for the disabled in southern Gyeongsangnam region. *Supervision & Practice Research*, 12, 109-132.
- [24] J. S. Kim & C. K. Kim. (2017). The impact of accessibility to use of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rura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61, 81-102.
- [25] H. E. Nam, J. W. Baik, H. Y. Lee & Y. J. Li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ocial Workers of the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8, 237-266.
- [26] S. M. Jung. (2016). *The Role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Gwang-ju : Gwangju Rehabilitation Center Association.
- [27] S. D. Hwang. (2007).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Pajoo: Hakjisa.

김 남 숙(Kim, Nam Sook)

[중신회원]



- 1994년 2월 : (구)부산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8월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09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 E-Mail : welpia0420@tu.ac.kr